



Received: 2026/07/26
Revised: 2026/08/04
Accepted: 2026/08/21
Published: 2026/09/30

***Corresponding Author:**

Hye Woo Kim

271, Jaun-ro, Yo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 ※ 개인정보 표시제한

E-mail: sbsn1133@gmail.com

손자병법을 통한 주요 해전의 이해와 한국 해군 발전 방향 연구

A Study of Major Naval Battle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OK Navy Based on *The Art of War*

김혜우^{1*}, 양수창²

¹해군 소령/해군대학 지휘참모과정 학생장교

²해군대학 해양전략전력학처 군수관리교관/충남대학교 국방경영공학 박사과정

Hye Woo Kim^{1*}, Su Chang Yang²

¹LCDR, ROK Navy/Student officer of Naval Commander & Step Course, ROK Naval War College

²Instructor of Logistics Management, Dept. of Maritime Strategy Force Studies, ROK Naval War College/Ph.D. student, Dept. of Defense Management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본 연구는 『손자병법』의 전쟁수행 원리를 바탕으로 현대 해전의 승패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 해군의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상황인식, 지속성, 주도권, 운용 적합성 및 결심 우위의 다섯 요소를 설정하고, 쓰시마·미드웨이·포클랜드 해전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전의 승패는 개별 무기체계보다 정보, 전력운용, 지속능력 및 지휘결심이 결합된 전쟁 수행 구조에 의해 좌우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 보면, 북한 해군은 단기적·국지적 비대칭 위협을 형성할 수 있으나 지속작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 해군은 유·무인 복합 감시체계, 분산·회복성 중심의 군수지원, 선제적 국면관리 및 지능형 결심지원체계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victory in modern naval warfare based on the strategic principles of *The Art of War*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OK Navy. By establishing five analytical factors—situational awareness, sustenance, initiative, operational suitability, and decision superiority—and applying them to the Battles of Tsushima and Midway and the Falklands War, the results show that naval victory is shaped not by individual weapons systems alone, but by an integrated warfare structure combining information, force employment, sustenance, and command decision-making. Although the North Korean Navy can pose short-term and localized asymmetric threats, it has limitations in sustained operations. Therefore, the ROK Navy should develop integrated manned-unmanned surveillance systems, distributed and resilient logistics support, proactive phase management, and intelligent decision-support systems.

Keywords

손자병법(The Art of War), 해전(Naval Warfare),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 지속성(Sustenance), 결심 우위(Decision Superiority), 한국 해군(ROK Navy)

1. 서론

해전(海戰)은 과학기술과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투 양상과 전력 운용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전함과 함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해전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등장, 유도무기와 네트워크 중심전의 발전을 거치며 전투공간과 작전수단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시대와 기술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상대보다 먼저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투를 수행하며, 가용전력을 집중하고, 획득한 정보를 적시적인 결심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해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해 왔다[1].

기존의 해전 연구는 특정 무기체계의 성능, 개별 전술 또는 지휘관의 결심을 중심으로 승패 요인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해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대와 기술환경이 서로 다른 해전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공통적인 승리요인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다가올 미래 해전은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 우주·사이버 영역 및 장거리 정밀 타격수단이 결합된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무기체계의 우열을 넘어 해전의 준비, 수행, 지속, 전력운용 및 지휘결심과 같은 해전의 전반적인 수행원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손자병법』은 전쟁 이전의 계산과 판단, 전쟁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물자, 유리한 형세의 조성, 지형과 수단의 활용 및 정보의 획득과 적용에 이르는 전쟁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어 해전의 전반적인 수행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주장된 바가 있는데, 송용호와 전명용(2018)은 『손자병법』의 전략사상이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평가하였으며, 김진찬과 김은영(2016)은 『손자병법』의 주요 구절이 현대 군사전략과 군사교육에서 지속해서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2,3]. 이러한 점에서 『손자병법』은 고대의 전투기법을 소개하는 병법서(兵法書)의 차원을 넘어, 서로 다른 시대의 해전을 구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손자병법』을 현대 해전에 적용한 선행연구로 이준일(2020)은 손자의 ‘세(勢)’를 중심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요인을 분석하였다[4]. 김동은(2022)은 「균형」 편의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과 전장의 선택을 중심으로 미드웨이·알류산 전역계획을 재조명하였다[5]. 이들 연구는 손자병법의 개념이 현대 해전 분석에 유용함을 보여주었으나, 특정 개념과 단일 전역에 분석범위를 집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손자병법』 13편에 다루고 있는 판단·지속·주도권·공간 활용·정보와 결심의 과정을 전쟁 수행원리라는 분석의 틀로 재구성하고, 이를 시대와 기술환경이 서로 다른 주요 해전들에 공통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병법』의 전쟁수행 원리를 바탕으로 현대 해전의 승패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 해군의 작전과 전력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자병법』의 전쟁수행 원리 분석요소로 ‘상황인식, 지속성, 주도권, 운용 적합성, 결심 우위’를 제시하고, 이를 쓰시마 해전, 미드웨이 해전, 포클랜드 해전에 적용하여 해전의 승패를 좌우한 공통요인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북한 해군의 전력과 작전 특성에 적용하여 북한 해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 한반도 해양전장에서 한국 해군이 발전시켜야 할 작전 및 전력건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비교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제2장에서는 손자병법의 전쟁관을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해전의 분석 틀로 다섯 가지 분석요소와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제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쓰시마·미드웨이·포클랜드 해전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승패 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해전 분석의 교훈을 북한 해군에 대한 분석과 연계하여 한국 해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손자병법 기반 해전 분석틀

2.1 『손자병법』에서의 손자의 전쟁관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개시 이전의 판단에서부터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관리, 유리한 형세와 주도권의 형성, 지형과 수단의 활용 및 정보 획득에 이르는 전쟁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송용호·전명용(2018)은 『손자병법』의 전략사상을 단순한 전투기술이 아니라 사전 판단과 준비, 유리한 조건의 조성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호 연계된 체계로 설명하였다[2]. 김진찬·김은영(2016)도 『손자병법』의 주요 구절이 현대 군사조직의 전략적 사고와 교육에 지속해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3]. 따라서 『손자병법』은 개별 전투기법의 집합이라기보다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며 승리의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병법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가 교전이 시작된 이후의 전투행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전의 판단과 준비를 통해 상당 부분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손자의 전쟁관은 『손자병법』 「계」 편의 오사칠계(五事七計), 「모공」 편의 지피지기(知彼知己), 「균형」 편의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을 통해 알 수 있다. 김동은(2020)은 미드웨이·알류산 전역계획을 분석하면서 미 해군이 일본의 작전 의도를 파악하고 결전 장소를 사전에 선택한 것이 승리의 조건을 먼저 조성한 사례로 평가하였다[5]. 이준일(2020)도 미 해군이 정보 우위와 제한된 항공모함 전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함으로써 유리한 세(勢)를 형성하였다고 분석하였다[4].

『손자병법』에서의 손자의 전쟁관을 해전의 관점에서 보면 해전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정보수집과 상황판단, 전력의 유지, 전장

의 선택, 지형과 수단의 활용 그리고 지휘결심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2 해전 분석요소 도출 및 적용방법

『손자병법』 13편은 현대 군사교리와 같이 전쟁수행 절차를 단계별로 직접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 편의 내용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상황인식’, ‘지속성’, ‘주도권’, ‘운용 적합성’, ‘결심 우위’라는 연속적인 분석요소로 재구성할 수 있다[6]. 이에 본 연구는 Table 1과 같이 다섯 개의 분석요소에 대응하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상황인식’은 적의 능력과 의도, 아군의 전력상태 및 전장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지속성’은 병참·보급·정비·인력 및 전력손실 이후의 복원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주도권’은 전투의 시간, 장소, 속도 및 국면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통제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운용 적합성’은 지형과 가용전력을 작전목적에 맞게 결합하고 불리한 조건을 이점으로 전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결심 우위’는 획득한 정보를 신속하고 일관된 지휘결심과 작전행동으로 전환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송용호와 전명용(2018)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요소

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상호 연계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정확한 ‘상황인식’은 적절한 전쟁수행 방식과 주도권 확보의 기초가 되며, ‘지속성’은 획득한 주도권을 유지하게 하며, 전장환경에 적합한 전력 ‘운용’은 ‘주도권’을 실제 전투 효과로 전환하고, 축적된 정보는 지휘관의 ‘결심’을 통해 다시 상황판단과 전력 ‘운용’에 반영된다. 따라서 해전의 승패는 어느 한 요소의 절대적 우위보다 다섯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기준을 쓰시마 해전, 미드웨이 해전 및 포클랜드 해전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쓰시마 해전은 전함과 함포 중심의 해전, 미드웨이는 항공모함 중심의 해전, 포클랜드 해전은 유도무기와 원정작전이 결합된 해전이라는 차이를 갖는다. 김태준(2004)은 쓰시마 해전에서 전쟁 준비와 전술운용의 차이를, 김동은(2022)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정보 우위와 전장의 선택을 분석하였다. 김경민(2024)과 김재엽(2013)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대응 의지와 원정전력 편성 및 장거리 작전 지속능력을 주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세 해전을 동일한 분석요소로 비교함으로써 특정 시대나 무기체계에 한정되지 않는 공통적인 승패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5,7-9].

Table 1. Analytical factors for naval warfare derived from *The Art of War*

Stage of Warfare	Relevant Chapters and Key Concepts	Analytical Factor	Key Evaluation Criteria
Prewar Assessment	• Initial Estimations (計), Attack by Stratagem (謀攻), and The Use of Spies (用間); “Know the enemy and know yourself” (知彼知己); Foreknowledge (先知)	Situational Awareness	• Whether the enemy’s capabilities and intentions, one’s own force condition, and the operational environment were accurately understood
Conduct of War	• Waging War (作戰); rapid warfare and control of attrition	Sustainment	• Whether logistics, supply, maintenance, personnel, and force recovery capabilities were maintained throughout the operation
Gaining the Initiative	• Military Disposition (軍形), Strategic Power (兵勢), Weaknesses and Strengths (虛實), Military Maneuvering (軍爭), and The Nine Variations (九變); “Compel the enemy and do not be compelled by him” (致人而不致於人)	Initiative	• Whether the time, location, tempo, and transition of the battle were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one’s own operational plan
Employment of Space and Means	• Marches (行軍), Terrain (地形), The Nine Situations (九地), and Attack by Fire (火攻); “Turn adversity into advantage” (以患爲利)	Operational Suitability	• Whether geographic conditions and available forces were effectively integrated with operational objectives, and unfavorable conditions were transformed into advantages
Information Integration and Decision-Making	• The Use of Spies (用間) and The Nine Variations (九變); Foreknowledge (先知) and rapid decision-making	Decision Superiority	• Whether collected information was rapidly converted into consistent command decisions and operational actions

분석은 각 해전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검토한 후, 승전국과 패전국의 ‘상황인식’, ‘지속성’, ‘주도권’, ‘운용적합성’ 및 ‘결심 우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다만 각 요소를 기계적으로 점수화하지 않고, 당시 각국이 보유했던 정보와 선택 가능한 대안 및 작전환경을 기준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결과를 알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패전국의 모든 선택을 오류로 규정하는 사후적 판단을 줄이고, 각 해전에서 다섯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승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3. 손자병법에 기반한 주요 해전 분석 및 비교

3.1 쓰시마 해전 분석

쓰시마 해전은 1905년 5월 일본 연합함대와 러시아 발틱함대가 대한해협 일대에서 충돌한 해전이다. 김태준(2004)은 일본의 승리가 단순한 함정과 함포의 성능 우위가 아니라 전쟁 이전의 준비, 정보수집, 지휘체계 및 작전환경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일본은 발틱함대의 이동경로와 전력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쓰시마 해협을 결전해역으로 선정하여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주도하였다. 또한 본토와 인접한 해역에서 안정적인 보급·정비체계를 유지하고, 해협의 지리적 조건과 함대의 속력·함포를 결합하여 러시아 함대의 선두를 압박하였다. 반면 러시아 함대는 장거리 원정항해로 전력의 약화된 상태에서 일본이 조성한 전장에 진입하였으며, 교전 이후에는 지휘와 통신의 혼란으로 통일된 대응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쓰시마 해전은 정확한 상황인식과 지속성, 전장의 선택 및 일관된 지휘결심이 결합될 때 전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7].

3.2 미드웨이 해전 분석

미드웨이 해전은 전체 항공모함 전력에서 우세했던 일본이 제한된 전력의 미국에 결정적인 손실을 입은 사례이다. 김동은(2022)은 미국이 일본의 작전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결전장을 선택함으로써 전투 이전에 승리의 조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준일(2020)은 정보·시간·공간과 전력집중이 결합

되어 미국에 유리한 세(勢)를 형성했다고 분석하였다[4,5]. 미국은 암호해독을 통해 일본의 공격목표와 시기를 예상하고 항공모함 전력을 미드웨이 인근에 사전 배치했으며, 손상된 요크타운함을 신속히 복구하여 전력의 지속성을 보완하였다. 또한 미드웨이섬의 지상 항공전력과 항공모함 전력을 결합하여 일본 함대의 행동을 제한하였다. 반면 일본은 미드웨이 점령, 미국 항공모함 격멸 및 알류산 작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력을 분산하였고,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자 결심과 전력운용에서 혼선을 보였다. 이는 전력의 양적 우위보다 정보에 기초한 전장의 선택과 결정적 시점의 전력집중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3.3 포클랜드 해전 분석

포클랜드 해전은 1982년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제도 점령에 대응하여 영국이 본토로부터 약 12,000 km 떨어진 남대서양에 원정군을 파견한 전쟁이다. 김경민(2024)은 아르헨티나가 영국의 해군력 감축을 군사적 대응 의지의 약화로 오판한 반면, 영국은 점령 이후 신속하게 판단을 수정하고 포클랜드 제도 탈환이라는 목표를 군사행동으로 전환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영국은 잠수함과 배제구역을 활용하여 아르헨티나 해군의 행동범위를 제한하고, 경항공모함·수직이착륙기·상륙함과 민간 선박을 원정작전에 적합하게 결합하였다. 또한 민간동원선박(STUFT: Ships taken up from trade)과 해외 지원기지를 통해 장거리 병참선을 유지하였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초기 점령으로 확보한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영국의 원정작전 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오판하였다. 이는 제한된 전력과 불리한 거리도 지속성, 통합운용 및 정치·군사적 결심이 뒷받침될 경우 전략적 승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8,9].

3.4 주요 해전 비교분석

세 해전은 전함과 함포, 항공모함, 유도무기와 원정전력이라는 서로 다른 기술환경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승전국은 상대보다 정확한 상황인식을 형성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전력을 유지했으며,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자신의 계획에 따라 통제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각 해전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naval battles based on *The Art of War*

Analytical Factor	Battle of Tsushima	Battle of Midway	Falklands War
Situational Awareness	Japan continuously assessed the route and operational condition of the Russian Baltic Fleet, while Russia misjudged both the Japanese fleet and its own combat capability.	The United States identified Japan's objective and expected timing through codebreaking, while Japan underestimated U.S. carrier strength and response capability.	Argentina misjudged Britain's political resolve, whereas Britain revised its assessment and prepared a military response after the occupation.
Sustainment	Japan maintained stable supply, repair, and crew readiness near its home bases, while Russia's combat capability declined during its long-distance voyage.	The United States rapidly repaired and recommitted Yorktown, while Japan had limited capacity to replace carriers and experienced aircrews.	Britain sustained a long-distance expeditionary operation through STUFT, overseas support bases, and an extended logistics network.
Initiative	Japan selected the decisive battle area and restricted the Russian fleet's freedom of action.	The United States anticipated Japan's plan, positioned its carriers in advance, and exploited Japan's dispersed forces.	Britain regained the initiative by employing submarines and exclusion zones to restrict Argentine naval operations.
Operational Suitability	Japan combined the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Tsushima Strait with fleet speed and concentrated naval gunfire.	The United States integrated Midway-based aircraft with carrier aviation and concentrated its limited forces at the decisive time and place.	Britain integrated light carriers, vertical/short take-off and landing aircraft, amphibious ships, submarines, and civilian vessels for expeditionary operations.
Decision Superiority	Japan rapidly converted reconnaissance information into concentrated maneuver and coordinated fleet action.	The United States converted incomplete intelligence into preemptive force positioning, while Japan experienced confusion between multiple operational objectives.	Britain consistently connected political objectives with military action, while Argentina failed to coordinate its services and adjust its strategy.
Key Lesson	Prewar preparation and the exploitation of geographical advantage	Foreknowledge, battlefiel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force	Operational sustainment and integrated employment of military and civilian resources

같으며 Table 2에서 요약한다.

비교 결과, 세 해전에서 '상황인식'은 승리의 조건을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러시아 함대의 이동경로를, 미국은 일본의 공격계획을 파악했으며, 영국은 점령 이후 아르헨티나의 행동을 정치·군사적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지속성'에서는 일본의 근거리 지원체제, 미국의 신속한 전력복구, 영국의 장거리 병참 유지가 각각 승리에 기여하였다. 또한 승전국은 지리와 전력을 작전목적에 맞게 결합하고, 획득한 정보를 실제 전력배치와 군사행동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였다.

따라서 세 해전의 승패는 어느 하나의 무기체계나 단일한 지휘결심보다 '상황인식', '지속성', '주도권', '운용 적합성' 및 '결심 우위'가 상호 결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쓰시마 해전은 사전 준비와 지리적 이점의 전투력화를, 미드웨이 해전은 정보 우위와 전장의 선택을 통한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을, 포클랜드 해전은 원거리 작전 지속성과 군사·민간자원의 통합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통점은 미래 해전에서도 물리적 전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전쟁수행 구조 전체

의 완성도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북한 해군 평가와 한국 해군의 발전 방향

4.1 북한 해군 전력의 특성과 분석요소별 평가

북한 해군은 전통적으로 한국 해군에 비해 수상함의 대형화·첨단화와 원해작전능력에서는 열세에 있으나, 다수의 소형 잠수함정, 고속정, 공기부양정, 반잠수정, 기뢰 및 지대함미사일을 활용하여 연안에서 비대칭 전력을 운용하는 특성을 보여 왔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과 국방부의 『2022 국방백서』는 북한 해군이 동·서해 함대를 중심으로 소형 함정과 잠수함정, 상륙·침투수단을 운용하며, 해상침투와 기습공격 및 연안거부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북한 해군은 기존에는 대규모 함대결전보다 한반도의 복잡한 연안환경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국지적으로 군사효과를 달성하려는 전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10,11].

그러나 최근 북한 해군은 기존의 소형·연안 중심 전

력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25년 5,000톤급 최현급 구축함을 공개하고, 동급 함정인 강건함의 진수를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건함의 진수 사고와 복구가 확인되었다[15]. 또한 2023년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주장하는 김군옥영용함을 공개하였고[16], 이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진척을 과시하였다[17]. 이러한 변화는 북한 해군의 단순한 연안 방어와 침투 작전을 넘어, 해상 기반 미사일 운용, 제한적 운용작전, 핵 억제력의 해상화까지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 해군의 변화는 손자병법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해전 분석요소와 연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상황인식’ 측면에서 북한은 정찰위성, 무인기, 해안감시체계 및 전자정보 수집능력을 보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군과 한미연합전력의 다 영역 감시·정찰능력과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이 있다. ‘지속성’ 측면에서는 대형함정과 잠수함 건조가 장거리 작전과 해상기반 억제능력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함정 운용 경험, 정비·보급체계, 승조원 숙련도 및 항만지원능력은 취약요인으로 남아 있다. ‘주도권’ 측면에서는 잠수함정, 기뢰, 지대함미사일, 무

인체계 및 해상발사 미사일을 결합하여 기습전, 국지전으로 전장의 흐름을 교란할 수 있다. ‘운용 적합성’ 측면에서는 서해의 복잡한 도서·조석 환경과 동해의 수중환경을 비대칭작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결심 우위’ 측면에서는 최고지도부 중심의 신속한 정치·군사적 결심은 가능하지만, 네트워크 기반 지휘통제와 전술제대의 자율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2-14].

종합하면 북한 해군의 강점은 기존의 소형·분산형 비대칭전력과 최근의 대형함정·잠수함 현대화 시도가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연안에서의 기습과 침투에 머무르지 않고, 해상 기반 미사일 운용과 제한적 원해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화가 곧바로 안정적인 해상통제능력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함정과 잠수함은 건조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용, 정비, 승조원 숙련, 항만지원 및 통합 지휘통제가 요구되며, 이 부분은 북한 해군의 지속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 해군은 단기적·국지적 주도권 확보와 비대칭적 위협 형성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상황인식·지속성·주도권·운용 적합성·결심 우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결합하여 해전 전

Table 3. Assessment of North Korean naval capabilities based on analytical factors

Analytical Factor	Strengths and Opportunities	Weaknesses and Limitations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Situational Awareness	Attempts to improve reconnaissance through coastal surveillance, unmanned systems, and intelligence assets	Limited ISR integration and vulnerability to ROK-U.S. multi-domain surveillance	Strengthen persistent maritime ISR and detect North Korean naval movements from the sortie phase
Sustainment	Construction of larger surface combatants and submarines suggests an ambition for longer-range operations	Limited maintenance, logistics, shipyard capacity, crew proficiency, and operational experience with large vessels	Prepare to exploit sustainment vulnerabilities through surveillance, blockade, and precision targeting of support nodes
Initiative	Submarines, mines, coastal missiles, unmanned systems, and missile-capable vessels can create localized surprise	Initiative is likely to be temporary if forces are detected early and tracked continuously	Deny surprise through early warning, forward surveillance, and rapid deployment of countermeasures
Operational Suitability	Littoral geography, islands, tides, shallow waters, and underwater terrain favor asymmetric operations	Large vessels may be vulnerable in confined waters and require stronger air defense, ASW, and logistics protection	Differentiate force employment between the West Sea and East Sea and strengthen mine, ASW, and unmanned countermeasures
Decision Superiority	Centralized command may enable rapid political-military decisions in crisis	Rigid command structure and limited network-based C2 may reduce flexibility during dynamic naval operations	Build faster decision cycles through AI-enabled information fusion and commander-centered decision support
Overall Assessment	North Korea can combine asymmetric littoral threats with emerging missile-capable naval platforms	Sustained sea control and prolonged blue-water operations remain constrained	The ROK Navy should counter both traditional asymmetric threats and emerging nuclear-missile maritime threats

체의 흐름을 지배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는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 한국 해군의 발전 방향

앞서 분석한 쓰시마·미드웨이·포클랜드 해전은 해전의 승패가 특정 함정이나 무기체계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쓰시마 해전은 사전 준비와 지리적 이점의 전투력화를, 미드웨이 해전은 정보 우위와 전장의 선택을 통한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을, 포클랜드 해전은 원거리 작전 지속성과 군사·민간자원의 통합을 보여주었다[4,5,7-9].

그러나 한국 해군의 발전 방향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뿐만 아니라, 북한 해군의 강점과 기회요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야 한다. 즉, 북한의 소형·분산형 비대칭전력, 기뢰·잠수함정, 해상무인체계 가능성, 대형 수상함 및 잠수함 기반 미사일 전력 확대에 대응하여 상황인식, 지속성, 주도권, 운용 적합성 및 결심 우위를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상황인식’ 측면에서는 북한 해군의 기지 이탈, 잠수함정 전개, 기뢰부설, 무인체계 운용 및 대형 함정의 원거리 이동 징후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해양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강점은 소형·분산형 전력과 은밀성을 활용하여 한국 해군의 상황인식을 교란하는 데 있으므로, 한국 해군은 해상초계기, 함정, UAV, USV, UUV, 고정형 수중

감시체계 및 우주·사이버·전자정보를 연계하여 공통 상황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는 쓰시마와 미드웨이 해전에서 확인된 정보 우위의 교훈을 북한 해군의 비대칭 위협에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지속성’ 측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특수전, 기뢰 및 사이버·전자기전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산·회복성 중심의 군수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전력을 확대하더라도 장기작전과 정비·보급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 해군은 반대로 주요 기지와 정비시설, 탄약·유류 저장시설, 이동형 정비지원 및 예비지휘소를 분산하여 작전 지속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포클랜드 해전의 교훈처럼 전투함의 성능만큼이나 군수지원과 민간 항만·조선·해운 역량의 활용이 전쟁 지속능력을 좌우할 수 있다.

셋째, ‘주도권’ 측면에서도 북한의 도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발 징후 단계부터 전장의 국면을 관리하는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해군은 잠수함정, 기뢰, 고속정, 지대함미사일, 무인체계 및 해상발사 미사일을 결합하여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북한 함정의 출항, 잠수함정 전개, 기뢰부설 준비, 미사일 탑재함 활동 및 해상무인체계 운용 징후가 식별될 경우 감시자산과 무인전력을 우선 투입하고, 주요 해역에 전력을 선제적으로 분산·배치하여 북한의 선택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제한

Table 4.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ROK Navy linked to North Korean naval strengths

Analytical Factor	North Korean Strengths and Opportunities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ROK Navy	Key Measures
Situational Awareness	Small, dispersed, and stealthy forces; submarines; unmanned systems; missile capable platforms	Establish persistent and integrated maritime surveillance	Fuse MPA, ships, UAV, USV, UUV, fixed underwater sensors, satellites, and electronic intelligence into a common operational picture
Sustainment	Attempt to expand operational range through large destroyers and submarines	Strengthen distributed and resilient logistics	Disperse fuel, ammunition, repair facilities, reserve command posts, and utilize civilian port and shipbuilding capacity
Initiative	Local surprise through submarines, mines, missiles, fast craft, and unmanned systems	Deny North Korea's temporary initiative from the warning stage	Detect sorties, submarine deployment, mine-laying, and missile-platform movements; deploy unmanned systems and rapid-response forces
Operational Suitability	Use of West Sea littorals, East Sea underwater terrain, and emerging missile-capable naval platforms	Differentiate force employment by maritime theater	West Sea: mine, infiltration, and littoral response; East Sea: ASW, underwater surveillance, long-range tracking, and missile-defense linkage
Decision Superiority	Centralized rapid decision-making and possible nuclear-missile escalation at sea	Advance intelligent C2 and decision-support systems	AI-based multi-source fusion, threat prediction, response-option generation, and human-centered command responsibility

해야 한다. 이는 선제공격이 아니라, 상대가 유리한 조건에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전장의 속도와 국면 전환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운용 적합성’ 측면에서는 동·서해의 상이한 작전환경과 북한 해군의 현대화 양상을 동시에 고려한 차별적 전력운용이 필요하다. 서해에서는 복잡한 도서, 조석, 얕은 수심을 활용한 고속정, 공기부양정, 기뢰, 침투 및 무인체계 위협에 대응해야 하며, 동해에서는 잠수함정의 원거리 전개, 해상발사 미사일, 대형함정의 제한적 원해활동 및 수중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함정과 무기체계를 모든 해역에 일률적으로 배치하기보다, 서해에서는 연안·기뢰·침투 대응 및 무인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동해에서는 대잠작전, 수중감시, 장거리 추적 및 미사일 방어 연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결심 우위’ 측면에서는 다출처 정보를 신속하게 융합하고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 지휘통제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대형함정과 잠수함 기반 미사일 전력의 확대될 경우 해상 위협은 단순함 침투나 국지도발에 그치지 않고, 핵·미사일 위협과 연계된 복합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한국 해군은 인공지능 기반 정보융합을 통해 북한 함정의 행동 양상, 미사일 탑재 가능성, 잠수함정 전개 패턴 및 기뢰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휘관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은 결심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보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대응시간을 단축하는 지원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최종적인 무력사용 판단과 책임은 지휘관에게 유지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한국 해군의 발전은 북한보다 더 많은 함정과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 해군은 여전히 소형·분산형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국지적 기습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기반 미사일 전력을 통해 해상작전의 범위와 위협수준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유·무인 복합 감시체계를 통해 ‘상황인식’의 우위를 확보하고, 분산·회복성 중심의 군수지원체계를 통해 ‘지속성’을 강화하며, 도발 징후 단계부터 ‘주도권’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동·서해의 작전환경에 맞는 ‘전력운용’과 지능형 결심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결심 우위’를 결합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단계적·국지적 기습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기반 해상 위협에도 대응

할 수 있는 전쟁 수행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손자병법』의 전쟁수행 원리를 현대 해전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상황인식’, ‘지속성’, ‘주도권’, ‘운용 적합성’ 및 ‘결심 우위’의 다섯 가지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쓰시마 해전, 미드웨이 해전 및 포클랜드 해전에 적용하였다. 송용호와 전명용(2018)은 『손자병법』의 전략사상이 사전 계산과 형세 조성,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정보 활용이 상호 연계된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김진찬과 김은영(2016)은 주요 구절이 현대 군사전략과 군사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손자병법』을 특정 구절이나 개별 개념의 해석에 한정하지 않고, 해전의 승패를 비교하기 위한 구조적 분석틀로 재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2,3].

세 해전의 분석 결과, 해전의 승패는 함정의 수나 무기체계의 성능과 같은 물리적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은 사전 정보수집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주도하였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은 정보 우위와 전장의 선택을 통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였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영국은 원거리 병참선과 군사·민간 자원의 통합 운용을 통해 제한된 전력을 전략적 승리로 전환하였다. 세 사례는 공통적으로 정확한 ‘상황인식’, 전력의 ‘지속성’, ‘주도권 확보’, 전장환경에 적합한 ‘전력 운용’ 및 신속한 지휘결심을 통한 ‘결심 우위’가 결합될 때 해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4,5,7-9].

북한 해군에 대한 분석 결과, 북한은 기존의 소형 잠수함정, 고속정, 공기부양정, 기뢰 및 지대함미사일을 활용한 연안 비대칭 위협에 더하여, 최근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전력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5년 5,000톤급 최현급 구축함을 공개하였으며, 강진함 진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대형 전투함 건조를 지속하고 있다[15]. 또한 김군옥영용함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도는 북한 해군이 제한적 원해작전과 해상 기반 핵·미사일 운용능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6,17]. 다만 이러한 현대화가 곧바로 안정적인 해상 통제능력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함정

과 잠수함은 장기간 운용, 정비·보급, 승조원 숙련 및 네트워크 기반 지휘통제가 요구되며, 이 부분은 북한 해군의 지속성과 결심 우위 측면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12,13].

따라서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의 전통적 비대칭 위협과 최근 현대화 추세를 동시에 고려하여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먼저 유·무인 복합 감시체계를 통해 북한 함정의 기지 이탈, 잠수함정 전개, 기뢰부설 및 대형함정의 원거리 이동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야 한다. 또한 주요 기지와 군수시설이 타격받는 상황에서 작전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산·회복성 중심의 군수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도발 징후 단계부터 전장의 국면을 관리하고, 서해에서는 연안·도서·기뢰·침투 위협 대응을, 동해에서는 대잠작전·수중감시·장거리 추적 및 미사일 방어 연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해상 기반 핵·미사일 위협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기반 정보융합과 지휘관 중심의 결심지원체계를 발전시켜 상황인식-지속성-주도권-운용 적합성-결심 우위가 연계된 전쟁수행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개된 문헌과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해군의 능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함정 가동률, 전시 지휘통제체계, 정비·보급능력 및 핵·미사일 탑재체계의 완성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섯 가지 분석요소를 정성적으로 적용하였으므로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상호작용을 수치화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 해군 현대화의 실제 운용능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상황인식, 지속성, 주도권, 운용 적합성 및 결심 우위가 해전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조덕현, 전쟁사 속의 해전, 신서원, 2016.

[2] 송용호·전명용, ‘손자병법의 전략과 그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73집, 2018, pp. 249-280.

[3] Jin Chan Kim & Eun Young Kim, ‘A Study on the Selection of Major Phrases from Sun Tzu’s Art of War and Heir Military Utilization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Studies, NO. 142, 2016, pp. 241-272.

[4] 이준일, ‘손자의 군사사상으로 본 미드웨이 해전 시 미국의 승리요인 분석: 손자의 ‘세(勢)’ 사상을 중심으로,’ KIMS E-Journal, 제1호, 2020, pp. 22-25.

[5] Dong-eun Kim, ‘Re-Illumination of Midway and Aleutian Campaign Plan Through ‘A Victorious Army Wins Its Victories Before Seeking Battle’ – Focusing on ‘Mesurement of Space’ and ‘Five Stages of Military Strategy’ in Sun Tzu’s The Art of War –,’ Military History, NO. 125, 2022, pp. 223-282.

[6] 중국 국방대학 편, 이정균·정찬민·배일수 역, 손자병법(해군대학 주석본), 2025.

[7] 김태준, ‘쓰시마 해전 승패에 대한 분석,’ 군사사 연구총서 제4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129-221.

[8] Jaeyeop Kim, ‘Enhancing Military Capabilities for Defending Dokdo – Based on Lessons from the Falklands War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VOL. 13, NO. 3, 2013, pp. 1-39.

[9] Kyungmin Kim, ‘The Response and Dilemma to Potential Threats Reviewed Through the Falklands War,’ Military History, NO. 131, 2024, pp. 267-308.

[10]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상비 전력.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menuId=MRYF&PWPR> (accessed 2026.01.13.)

[11]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

[12]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북한 해군력 평가와 시사점,’ 해양전략 연구보고서, 2021, pp. 41-46.

[1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 군사전략과 해군력 현대화 동향,’ INSS 전략보고서, 2024, pp. 22-27.

[14] Il-Seok Oh & Yonghwan Choi, ‘Pyongyang’s Showcase of UAVs During the Victory Day Military Parade and Its Implications,’ INSS Issue Brief, VOL. 103, NO. 17, 2023.

[15] Reuters, ‘North Korea Pulls Capsized Warship Upright After Botched Launch, Report Says,’ June 4, 2025.

[16] AP News, ‘North Korea Says Its Latest Submarine Can Launch Nuclear Weapons, but There Are Doubts,’ September 8, 2023.

[17] AP News, ‘North Korea Displays Apparent Progress in Constr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 December 25, 2025.